

2015 한국바로알리기 민간단체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사 업 명	불가리아 초, 중, 고 대학교 교사 대상 '대한민국 바로 알리기'
사업기관	불가리아 교사 대표단, 학생 청소년 대표단
사업책임자	이하얀
사업기간	동의서제출일로부터 ~ 2015.12.11
사 업 비	
사업진행현황	<p>불가리아 내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은 한국학진흥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2013년부터 3년째 진행되고 있다. 지난 2년간은 불가리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였었는데 항상 직접 한국을 접하게 해 주고 싶고 직접적으로 한국을 보고 느끼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항상 있었다. 2년간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학생들과 교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을 접하였고 더 많은 불가리아 인들이 한국에 대해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은 아래와 같다.</p> <p>첫째, 불가리아 교사들의 정확한 한국역사 인식 확립 한국어과 한국역사를 불가리아 청소년들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사들로 하여금 이번 한국 방한과 세미나는 올바른 역사의식과 자긍심 함양 및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 증진에 도움을 주었다. 불가리아 교사들은 대한민국 근세 이후 역사를 단계적·체계적 학습을 통한 한국역사 바로 알기 테마별 역사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p> <p>둘째, 불가리아 학생들의 한국 역사 관심 고조 불가리아와 멀리 떨어진 나라인 한국에 대한 제대로 된 학습을 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이번 사업을 통하여 한국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 졌고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역사라고 하면 대부분 학교시절에 경험을 바탕으로 암기과목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의 다양한 역사적인 장소를 직접 둘러봄으로써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문자로 읽는 것보다 가슴에 새겨 인식하게 되었다.</p> <p>셋째, 역사 안내, 한국 소개 불가리아어 버전 작성 불가리아로 돌아간 학생들과 교사들은 불가리아로 박물관 설명서와 한</p>

국 역사, 문화에 대한 설명을 불가리아어 버전으로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에 구비된 상세 설명은 현재 영어, 중국어, 일어로 번역되어 있다. 상세 설명을 불가리아어로 번역하면서 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불가리아에 있는 친구들과 한국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프로젝트의 진행 전부터 마무리까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셨던 한국학 중앙 연구원과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를 드린다.

* 2015년 사업 내용 보고

1. 2015년 사업 내용 보고

1.1 불가리아 교사 대표단, 고등학생 대표단 초청 사업

가. 방한 인원: 총 14명

"윌리암 그라드스톤" 소피아 18번 학교 교장, 교사 3인, 학생 10명

구분	No	학년	한국이름	영문이름
학생	1	8	미하엘라/지연	Mihaela
	2	9	스테피/선미	Stephanie
	3	8	비키/은지	Victoria
	4	8	아나/지원	Ana-Maria
	5	9	렉시/미영	Alexandra
	6	10	쿤체/현아	Kunche
	7	9	쯔베티/지연	Tsvetina
	8	10	소피아/소은	Sofia
	9	8	테디/현아	Teodora
	10	8	마리아/서현	Maria
교사	1	교장	Velicka Stoicheva	
	2	역사	Nelly Ivanova	
	3	영어	Mila Stoicheva	
	4	한국어	Popova Stoyanova	

1) 용산 국립 박물관 방문, 박물관 안내서 번역

- 8월 25일 화요일, 대표단 전체 방문
- 일정 중 교사들과 학생들이 방문 할 곳과 체험 할 내용들에 대해 불가리아 설명 번역본을 제작하였다. 또 불가리아로 돌아간 교사들과 학생들이 세부 사항 발표를 통해 한국 역사와 체험 내용을 알렸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는 내년도 방한 할 교사와 학생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2) 태권도 체험, 태권도 설명 번역

- 8월 26일 수요일
- 한국의 전통 무술인 태권도를 함께 배워보고 태권도의 역사와 기술에 대하여 공부하였다.



3) 한국 요리 강습, 한국 요리 설명 번역

- 한국음식을 함께 만들어보고 방한 시 접했던 한국음식을 상세히 기록한 후 소개문을 만들었다. 이 중 일부는 앞으로 만들 한국 음식 백과 (불가리아어버전)에도 인용 될 예정이다.



4) 남산타워 방문

- 한국 드라마와 영화로 유명해진 서울의 랜드마크 남산 타워를 방문하였다.



3.2 불가리아 청소년 대표단 초청 사업

3.2.1. 초청 사업 개요

가. 방한 인원: 총 5명

불가리아 청소년 체육청 공무원 1명, 불가리아 청소년 대표단 4명

구분	No	소속	영문이름
공무원	1	불가리아 청소년 체육청	Tatyana Dimitrova Misheva
청소년 대표	1	플로브디프 1번 중등학교	Kristina Ivelinova Tomova
	2	바르나 세계 경제대학	Kostadin Ivanov Dinkov
	3	소피아 국립 대학교	Nikoleta Zhivkova Dimitrova

1)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 방문, 안내서 번역

- 9월 28일 월요일

- 불가리아 청소년 대표단과 함께 역사 박물관을 방문하여 전문가에게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긴 시간동안 공부를 하였다.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에 구비된 상세 설명은 현재 영어, 중국어, 일어로 번역되어 있다. 상세 설명을 불가리아어로 번역하면서 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불가리아에 있는 친구들과 한국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주한불가리아 대사관 방문

- 9월 28일 월요일

- 한남동에 위치한 주한 불가리아 대사관을 방문하여 주한 불가리아 대사관 Petarv Andonov 대사와 2시간 가량 면담을 하였다. 한국 대사로 근무한 지 올해 4년째 되는 안도노프 대사는 청소년 대표단에게 한국의 근현대사와 현재 한국과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

등을 설명 해 주었다.



3) 남산골 한옥 마을 방문

- 9월 29일 화요일

- 서울의 상징인 남산은 옛 이름을 목멱산이라고 하였으며, 도성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남산으로 불리어 왔다. 시내에 산재해 있던 서울시민속자료 한옥 다섯 채를 이전, 복원하고 이 한옥에 살았던 사람들의 신분성격에 걸맞은 가구 등을 배치하여 선조들의 삶을 재조명 하였다. 전통정원 내에는 그동안 훼손되었던 지형을 원형대로 복원하여 남산의 자연식생인 전통 수종을 심었으며, 계곡을 만들어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하였고, 또한 정자·연못 등을 복원하여 전통양식의 정원으로 꾸며져 있다. 이 곳에서 400년전 한국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들여다 보는 시간을 갖었다. 또한 이 곳에서 우리나라 전통 한복을 입어보는 체험을 하였다.



4) 한국-불가리아 문화 역사 세미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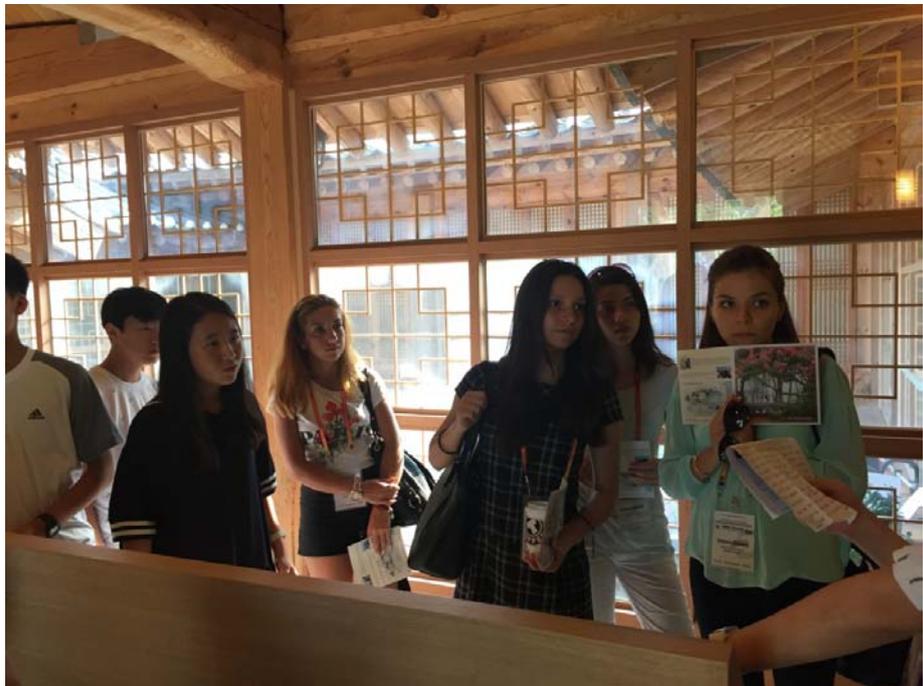
- 9월 30일 수요일
- 대한민국 청소년 대표들과 한국-불가리아 문화 역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대한민국의 역사 배우기가 주를 이루었으며 대한민국의 태초부터 현재까지 역사를 간략하고도 정확하게 발표 하였다. 한글 배우기, 한복, 한국의 청소년들의 생활등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었고 불가리아 청소년들이 불가리아로 돌아가 세미나를 토대로 발표를 하였다.





5) 학생들과 전통 문화 수업 개최

- 10월 1일 목요일





6) 서울 시청 방문 - 통통 투어 참가

- 10월 2일 금요일
- 서울시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시청사 통통투어에 참가하여 서울시에 대한 역사적 의의와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의 변화된 모습을 한눈에 파악 하는 시간을 갖었다.





기타

*사업 비용 내역 정리

• **사용 내역**

	프로젝트	내용	예산
1	불가리아 교사 대표단 방한	프로그램 진행 비, 연구비, 인솔 비	
2	불가리아 청소년 대표단 방한	프로그램 진행 비, 연구비, 인솔 비	
3	불가리아-한국 역사 교류 세미나	다과, 인쇄, 연구 비용 발표 비용	
4	귀국 발표회	다과비용, 연구비용, 발표비용	
5	인천공항-서울 리무진 버스 간식	30 인 왕복	
7	18 번 학교	교재 만들기 지원금	

	총 계	

- ※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작성하여도 무방함
- ※ 추가 자료가 있을 경우 제출 요망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년 해외민간단체및학회지원사업】



불가리아內 한국바로알리기

(Understanding Korea in Bulgaria)

최종보고서
(Final Report)

작성자: 이하얀 (연구책임자)
한국외국어대학교불가리아어과강사

목차

1. 사업소개

2. 불가리아 약관

3. 2015년 사업 내용 보고

3.1 불가리아 교사 대표단, 고등학생 대표단 초청 사업

- 1) 용산 국립 박물관 방문, 박물관 안내서 번역
- 2) 태권도 체험, 태권도 설명 번역
- 3) 한국 요리 강습, 한국 요리 설명 번역
- 4) K-pop 댄스 배우기, 한류 소개
- 5) 남산타워 방문

3.2 불가리아 청소년 대표단 초청 사업

- 1)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 방문, 안내서 번역
- 2) 주한불가리아 대사관 방문
- 3) 남산골 한옥 마을 방문
- 4) 한국-불가리아 문화 역사 세미나 개최
- 5) 학생들과 전통 문화 수업 개최
- 6) 서울 시청 방문 - 통통 투어 참가

4. 사업을 마치며

1. 사업 소개

<p>사업명 Project Name</p>	<p>불가리아 내 한국 바로 알리기 프로젝트 (Understanding Korea in Bulgaria)</p>	
<p>사업기간 Project Period</p>	<p>2015.06.01.~2015.12.11 (6 months)</p>	
<p>연구원</p>	<p>책임연구원 Project Director</p>	<p>이하얀(LeeHa Yann) 한국외국어대학교 불가리아어과 강사 * 불가리아소피아대학교 유럽연합학과박사과정</p>
		<p>Nelly Ivanova 불가리아 소피아 윌리엄 그라드스톤 18번외국어학교 역사 교사</p>
		<p>Mila Stoicheva 불가리아 소피아 윌리엄 그라드스톤 18번외국어학교 영어 교사</p>
	<p>공동 연구원 Co-researcher</p>	<p>PopovaStoyanova 불가리아 소피아 윌리엄 그라드스톤 18번외국어학교 일본어 교사</p>
	<p>노미란 (Nho Mi Ran) 불가리아 벨리코 떠르노보 대학교 한국학과 강사 * 불가리아소피아대학교 저널리즘학과 학사과정</p>	

		<p style="text-align: center;">한지영(HanJi young)</p> <p>불가리아 벨리코 떠르노보 대학교 한국학과 강사 * 벨리코떠르노보대학교 교회예술학과 학사과정</p>
	<p>소규모 프로젝트지원</p>	<p style="text-align: center;">Tatyana Dimitrova Misheva</p> <p>불가리아 청소년 체육과</p>
		<p style="text-align: center;">Kristina Ivelinova Tomova</p> <p>플로브디프 1번 중등 학교</p>
		<p style="text-align: center;">Kostadin Ivanov Dinkov</p> <p>바르나 세계 경제대학</p>
		<p style="text-align: center;">Nikoleta Zhivkova Dimitrova</p> <p>소피아 국립 대학교</p>
	<p style="text-align: center;">자료조사 및 행사진행 Research Assistant</p>	<p style="text-align: center;">이찬무, 안태균, 이선민 한국의국어대학교 불가리아어과</p>
<p>사업 소개</p>	<p>“불가리아 역사 교과서 왜곡 대책 및 불가리아 내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은 동유럽에서 가장 거세게 한류가 번지고 있는 불가리아 내에서 한국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사업이다.</p> <p>한류로 인해 한국 문화를 알고자 하는 갈망이 커진 것에서 더</p>	

	<p>나아가 동유럽 과 발칸유럽을 통틀어 한국어 학습 열의가 가장 높은 불가리아에는 수도 소피아를 비롯하여 여러 도시에 한국어 교육기관이 생겼다.</p> <p>많은 불가리아 교사들이 한국어와 한국 역사를 불가리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지 3년. 하지만 불가리아어로 번역된 한국 역사 책 하나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한국 역사를 교육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실정이다.</p> <p>하여 이번 한국학 중앙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불가리아 교사 대표단과 학생 대표단이 방한, 한국과 여러 도시를 방문하여 한국을 겪어봄으로써 바른 한국 역사의식을 확립하고 불가리아로 돌아가 제대로 된 대한민국 역사를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p> <p>또한 본 사업은 한국학 중앙연구원의 2014년 한 해 동안 성공리에 진행 되었던 한중연의 해외 민간단체 및 학회지원 사업의 연장선으로 작년의 사업을 이어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사업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Introduction of Project</p>	<p>This project was supported by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Grant.</p> <p>The project team’s mission is to promote a better understanding of Korea to Bulgaria.</p> <p>The Understanding Korea Project carries out this mission two ways. First, the project team develops materials that introduce Korean history, culture, and multicultural society, Korean alphabet in Bulgarian languages. Other Understanding Korea Project activities include seminars, fellowships, colloquium, and financial support. All of these activities are meant to improve Korea’s image while promoting mutual understanding and friendship.</p>

	Second, the project team collects and analyzes textbooks and maps from Bulgaria to ascertain the image that is being presented of Korea.
--	--

2. 불가리아 약관



국명	불가리아
위치	발칸유럽 남동부
언어	불가리아어
GDP	507억\$
종교	불가리아정교 83%
수도	소피아

3. 2015년 사업 내용 보고

3.1 불가리아 교사 대표단, 고등학생 대표단 초청 사업

2011년 유럽 내 최초로 공립 초/중/고등학교에 한국어 반이 개설 된 불가리아 소피아의 ‘윌리엄 그라드스톤’ 18번 학교 교사와 고등학생 대표 10명이 한국을 방문하여 살아있는 역사를 공부하고 한국에 대한 많은 공부를 하였다.

불가리아 교사들이 한국어와 한국 역사를 불가리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시작 한지 3년. 하지만 불가리아어로 번역된 한국 역사 책 하나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한국 역사를 교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실정이다.

하여 불가리아 교사 대표단과 학생 대표단이 방한, 한국과 여러 도시를 방문하 여 한국을 견어봄으로써 바른 한국 역사의식을 확립하고 불가리아로 돌아가 제대 로 된 대한민국 역사를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방문 한 곳들을 중심으로 역사 박물관등의 한국어 안내서를 불가리아어로 공동 번역 하여 심도 깊은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3.1.1 초청 사업 개요

가. 방한 인원: 총 14명

"윌리엄 그라드스톤" 소피아 18번 학교 교장, 교사 3인, 학생 10명

구분	No	학년	한국이름	영문이름	생년월일
학생	1	8	미하엘라/지연	Mihaela	1999.05.26
	2	9	스테피/선미	Stephanie	1998.12.27
	3	8	비키/은지	Victoria	1999.10.02
	4	8	아나/지원	Ana-Maria	1999.07.22
	5	9	렉시/미영	Alexandra	1998.07.20
	6	10	쿤체/현아	Kunche	1998.05.13
	7	9	쯔베티/지연	Tsvetina	1998.11.09
	8	10	소피아/소은	Sofia	1997.12.16
	9	8	테디/현아	Teodora	1999.08.14
	10	8	마리아/서현	Maria	1999.02.02
교사	1	교장	Velicka Stoicheva		
	2	역사	Nelly Ivanova		
	3	영어	Mila Stoicheva		
	4	한국어	Popova Stoyanova		

나. 방한 일정: 2015년 8월 24일 ~ 9월 1일 (8박 9일)

다. 방한 프로그램: 아래 첨부

8월 24일(월)
인천 공항 도착
서울 숙소 도착
불가리아 교사들과 저녁
8월 25일(화)
용산 국립 민속 박물관 방문, 이태원 방문
8월 26일(수)
태권도 체험
K-Pop Dance 배우기
8월 27일(목)
한국 요리 강습(잡채, 동태전)

시내 탐방: 남산타워, 덕수궁, 난타공연 관람
남산 타워(1.5시간), 덕수궁(2시간), 난타 (2시간)

8월 28-30일(금-일)

개인 자유 일정

8월 31일(월)

부채춤 배우기, 한복 체험, 사진촬영(전문지도 강사 지도)

9월 1일(화)

불국으로 출발

다. 일정 세부 내용 및 불가리아어 보고서 / 안내서

일정 중 교사들과 학생들이 방문 할 곳과 체험 할 내용들에 대해 불가리아 설명 번역본을 제작하였다. 또 불가리아로 돌아간 교사들과 학생들이 세부 사항 발표를 통해 한국 역사와 체험 내용을 알렸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는 내년도 방한 할 교사와 학생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1) 용산 국립 박물관 방문







Национален музей Йонгсан Описание: Музеят, който откри 1909 Changgyeonggung представени от създаването на Националния музей . Генерал-губернатор на Корея през 1915 г. е открит музей беше открита в Националния музей , Музея придобил генерал-губернатор на Корея непосредствено след Освобождението през 1945.1972 г. от Националния музей беше да промени официалното име и името, използвано до сега. До 1986 jungangcheong сградата на номер девет беше стар и Музеят отваря. От 2005 г. военните Yongsan САЩ беше в състояние да се простират преди отваряне на оттеглянето на хеликоптери е оборудва външния вид на настоящето.

На площ от 290 000 5,550.69m² основна сграда е построена през първата сутерен, партер 6 404 m дължина, максимална височина на сградата от 43.08 метра. Вътре в музея има отделен детски музей и изложба на открито. 300 001 В милиона, че в Националния музей в която се помещава артефакти (януари 2012 база) има шест постоянна експозиция (праисторическа • godaegwan, сред • Мускулни обичаи, дарени ковчег, който стоеше ввенче, Азия тръба парче •) 5 хиляди точки на

артефакти и експонати, артефакти и дисплеи на международни музеи наем на различни теми се планира да се проведе тази изложбена зала и детска музей .

Също така разполага с разнообразие от културни продукти да се продават продукти, които култура, библиотеки, ресторанти, кафенета и класическа, танц, театър, се провежда професионални театъра театрални спектакли, като музикален <за>.

Постоянна изложба и детски музеи е свободен, и планират специални изложби са платени (освен по време на изложбата е свободен). 30 или повече студенти трябва да gwanramil интернет резервации до седмицата на туристическата група

Музей Работно време: Вторник • Четвъртък • Петък 09:00 до 18:00 часа, можете да • събота от 09:00 часа до 21:00 часа в неделя и на национални празници • 09: 00 ~ 19: 00 а. Въпреки това, на децата музей е последната сряда на всеки месец разширение само отворен до 21:00 часа. И в понеделник и от 1 януари е затворен, се отваря кутията понеделник е празник, и затвори на първия ден от седмицата след празника. Метро линия 4.

2) 태권도 체험

한국의 전통 무술인 태권도를 함께 배워보고 태권도의 역사와 기술에 대하여 공부하였다.



Таекуон-До (на корейски: 태권도, в свободен превод – „Пътят на ударите с ръце и крака“ или "система от ръце и крака") е вид източно бойно изкуство, развило се в Корея. Негов създател е генерал Чой Хонг Хи (1918 – 2002).

Двете най-големи Таекуон-До организации са: Международната федерация по Таекуон-До (ITF) – със седалища в Северна Корея, Канада и Испания. И Световната федерация по Таекуондо (WTF), която е създадена през 1973 година и е със седалище в Южна Корея. Съществува и Българска Таекуон-до Федерация (Б.Т.Ф.)

През 1955 година Таекуон-До получава своето официално признание като бойно изкуство в Корея. Свикана е специална комисия от водещи майстори, инструктори, историци и известни деятели. Разглеждани са няколко варианта относно наименованието на новия вид бойно изкуство. На 11 април свиканата от генерал Чой Хонг Хи комисия приела предложеното название – Таекуон-До.

През 1959 година Таекуон-До се разпростира извън границите на Корея.

През 1960 година се отбелязва бързо разпространение и популярност на Таекуон-До не само в Корея, но и в много страни по света. Първият демонстрационен отбор по Таекуон-До се е състоял от майсторите Хан

Ча Кио, Ким Джунг Кеун, Парк Джунг Су и Куон Дже Хуа, които популяризирали новото бойно изкуство в девет страни. Това послужило като основа за създаването на Международната Таекуон-До Федерация (I.T.F).

На 22 март 1966 година Световната Таекуон-До Федерация е създадена в Сеул с участието на Виетнам, Малайзия, Сингапур, Западна Германия, САЩ, Турция, Италия, Египет и Корея.

От 2000 година Таекуондо WTF е единственото източно бойно изкуство, което е и олимпийска дисциплина.

3) 한국 요리 소개, 강습 참여- 김치, 비빔밥, 김밥, 불고기, 삼계탕

한국음식을 함께 만들어보고 방한 시 접했던 한국음식을 상세히 기록한 후 소개문을 만들었다. 이 중 일부는 앞으로 만들 한국 음식 백과 (불가리아어버전)에도 인용 될 예정이다.

● 김치



Това е едно от основните традиционни ястия на корейската кухня. Корейците смятат, че дълголетие и красотата се дължат на благоприятните върху човека свойства на кимчи. По време на олимпиадата в Сеул, в Корея е отчетен бум на консумацията на кимчи, което го прави любимо ястие и на чужденците. Кимчи са всъщност ферментирали зеленчуци, основно зеле и наподобява българското кисело зеле, но с много добавени подправки – лют червен пипер, сок от чесън и лук, домати и други. В зависимост от отделните райони, кимчи може да се приготвя по много различни начини, съществуват над 200 рецепти с голямо разнообразие и вариации. Ястието се консумира по всяко време на годината в Корея и като съставна част на всяко едно от трите ястия за деня. За да си приготвите кимчи са ви необходими китайско зеле, ряпа, чесън, джинджифил, лют червен пипер, 1-2 моркова, лук или праз-лук,

целина, корейски рибен сос, сол и малко захар. Китайското зеле се реже на парчета широки 3–5 см. Слага се в купа на няколко реда, като между парчетата се наръсва сол. Отгоре се слага чиния и се затиска с тежест. Остава се 12 часа като 1 път парчетата се обръщат. Отделената вода се запазва. Ръпата и морковът се настъргват на ситно, кервизът и лукът се режат на дребно, джинджирилът се настъргва, чесънът се пресова, всичко се обърква с лютия пипер, солта, захарта и рибния сос. Добавя се отделената от зелето вода. Омекналото зеле се измива под течаща вода и се изцежда добре. Обърква се с подправките и се нарежда в буркан. Зелето трябва да е покрито с течност и бурканът да не е много пълен, защото при ферментацията е възможно да прелее. Бурканът се оставя 1–2 дена на стайна температура, след това се слага в хладилник, където може да се съхранява 1–2 седмици. Зелето трябва да се наблюдава и няколко пъти да се притиска, за да остане винаги покрито с маринатата. След като кимчи ферментира, не трябва да влиза в контакт с метални предмети, защото се разваля.

- 비빔밥



Пибимпап са нарязани на ивици и леко запържени зеленчуци върху ориз, с яй ца на очи, задушени лентички от телешко месо и специален сос. Целият ансамбъл се поднася красиво подреден в специален съд, но преди ядене задължително трябва да се разбърка, за да се усети пълноценно вкусът му. „Пибим“ означава „разбърквам“. За съжаление не всички продукти, необходими за приготвянето на пибимпап, могат да се намерят навсякъде. Ако имате късмет, може и да намерите на пазара корени от тораджи (нещо като женшен), или пък ядлива орлова папрат (косари), доставени от Азия. Те често са в сушен вид, което не им пречи да имат също толкова добър вкус след като бъдат накиснати. Ако използвате тораджи, потопете го в подсолена вода, за да премахнете горчивия вкус. Отрежете твърдите краища и разцепете стъблата на дълги, тънки ивици. Предимството при приготвянето на пибимпап е, че бихте могли да замените почти всеки зеленчук с някой друг. Чушки, спанак, моркови, репички, гъби, кресон – всеки един от тези зеленчуци би придал допълнителен вкус и цвят на ястието. Преценете на око колко продукти са ви нужни за четири порции, и сварете също необходимото количество ориз. Най –напред измийте всички зеленчуци. Обелете ги и ги нарежете на дълги тънки ивици (с дължина колкото кибритени клечки). Запържете поотделно всички зеленчуци в тиган с малко олио, а след това ги подправете с щипка сол и пипер. Ако слагате спанак, първо леко го попарете. Изцедете го, а после го запържете, както останалите зеленчуци. Зеленчуците с големи листа можете просто да нарежете на дребно. Отделете пънчетата на гъбите. Нарезете ги на тънки ивички и също ги задушете в малко мазнина. Обелете и посолете краставиците. Нарезете ги и леко ги запържете. Изпържете до златисто четири яй ца на очи. По желание може да добавите и телешко месо, нарязано на лентички и задушено със ситно накълцани чесън и пресен лук, няколко капки соев сос и малко захар. В купата сложете най –отдолу ориза. Внимателно наредете лъчеобразно един до друг всички видове зеленчуци, като започнете от центъра. Най –отгоре сложете месото и яй цата. При ядене всичко се разбърква добре. Полива се с паста от червен пипер и сусамово олио, за да не бъде ястието сухо.

- 김밥



Това е друго много известно леко корейско ястие, приятно не само на вкус, но и на външен вид. Приготвя се от ориз, различни зеленчуци и месо, които се задушават, нареждат се върху малка рогозка и след това се увиват в листа от водорасли. Резултатът прилича малко на оризово руло „Стефани“, но по красота го превъзхожда заради нежния контраст на морковите и краставиците на фона на белия ориз. Като цяло мисълта за красотата на всяко ястие е една от спецификите на корейската кухня, което може би малко я отдалечава от българската кулинарна традиция. Необходими са ви малка квадратна бамбукова рогозка (за навиването) и 8-10 листа от водорасли, които бихте могли да си набавите от магазин за азиатски храни. По желание оттам може да си купите и сусамово олио, мирин – оризов оцет, както и танмуджи – жълта маринована ряпа. Ако не можете да си намерите бамбукова рогозка, използвайте няколко листа сгънато във формата на квадрат фолио, достатъчно голямо за водораслите. Вземете съд, достатъчно голям да побере шест чаши ориз, като набъбне. Докато оризът се вари, пригответе плънката. Измийте и обелете два моркова и две краставици. Нарезете ги по дължина на лентички с дебелината на молив. Те трябва да бъдат дълги колкото листите водорасли. Сложете една след друга лентичките, ако не са

достатъчно дълги. Направете същото, ако слагате шунка, танмуджи и ролца (имитация на месо) от рак. Разбийте 3-4 яйца. Излейте половината от сместа в незалепащ тиган или пък в тиган с малко олио така, че да покрие дъното. Изпържете я от двете страни като омлет на слаб огън. Когато яйцата са готови, внимателно ги извадете от тигана. Оставете омлета да изстине. Направете същото и с останалата смес. После разрежете омлета на равни ивици. Ако искате да придадете традиционен вкус, използвайте смляно говеждо месо вместо шунка или месо от раци. Запържете месото в същия тиган, след това го раздробете с вилица и подправете със сол и пипер. Оставете мазнината да се отцеди. След като оризът е готов, по желание можете да сложите подправки, за да стане още по-вкусен. Докато е все още топъл, добавете три супени лъжици оризов оцет (леко подсладен), или пък сусамово олио за по-добър вкус. Тъй като сусамовото олио е скъпо, бихте могли просто да намажете ножа, с който то ще разрязвате готовия кимшап.

Вземете един от листите водорасли и го поставете върху рогозката за навиване така, че да се изравни с долния и край. Нанесете един черпак ориз на слой, дебел един сантиметър така, че да се покрие листа водорасло. По средата сложете една до друга по една лентичка от всеки зеленчук и месото. След това повдигнете единия край на рогозката и навийте на руло. Трябва да придадете правилна кръгла форма, като внимавате да не излезе плънката. Докато завивате рогозката на руло, натискайте с пръсти постоянно, за да запазите овалната форма. Лепкавият ориз няма да позволи формата да се промени, така че не се притеснявайте!

- 불고기



Едно от най -популярните ястия в Корея. Името му идва от „пул“ (огън) и „коги“ (месо). Буквално се превежда огнено месо, въпреки че не е особено пикантна храна. Приготвя се от тънко нарязано говеждо филе, което се маринова в смес от соев сос, сусамово олио, черен пипер, лук, чесън, женшен, вино и захар. За да се овкуси добре и да омекне, месото трябва да постои 2-4 часа в марината. След което се пече на скара, макар че се среща и приготвено в тиган. Едновременно с месото се пекат и цели парчета чесън, нарязан на едно лук и зелена чушка. Това е едно от ястията, които „отварят“ вратата към корейската кухня, тъй като е предпочитано като първа среща с типичната за страната храна. Пулгоги се сервира с цели листа спанак, маруля или друг листовиден зеленчук, които се използват за комбинация с парчетата печено месо, като се загръщат в тях преди да бъде изядено. За доовкусяването на тези „зелени сърми“ може да се използват и малко кимчи, доматиен сос, зеленчуци, които да увият в листото.

- 삼계탕



Женшенева пилешка супа е една от най -популярните супи в Корея, за която се вярва, че притежава лечебни и укрепващи свойства за човешкия организъм. Всички продукти в нея се слагат цели и ненарязани, за да се запазят максимално полезните съставки в тях. Освен през зимата, тази супа се консумира много през лятото. В най -големите жеги корейците си я поръчват заради високото ѝ хранително съдържание, което им помага да възвърнат силите си, изгубени в резултат на тежките влажни летни дни. Приготвя се от цяло пиле, което се пълни с киснат около час преди това ориз, корен от женшен, чеснов лук и няколко хинапа. Месото се слага да заври в тенджерата около 20 минути, премахва се появилата се пяна и се долива отново вода. Ястието ври още около 40 минути на умерен огън. Сервира се със сол и пипер и естествено – кимчи. В зависимост от количество на корените женшен, които се сложат, ястието придобива по-силен горчив вкус.

4) K-pop 소개, 한류 체험, K-pop 댄스 배우기

동유럽, 발칸유럽을 통틀어 가장 한류 붐이 거센 불가리아 학생들은 K-pop에 가장 큰 흥미를 갖고 있었다. 한국 아이돌의 노래와 춤을 배우는 시간을 통해 K-pop을 직접 느끼는 시간을 갖었다.



Ако имената SHINee, Super Junior, 2NE1, Big Bang, EXO не Ви говорят нищо, то най-вероятно сте на възраст над 20 години и за първи път чувате за K-pop. Всъщност, това е най-новото и модерно увлечение на подрастващите и е свързано с корейската музика. В България тези групи навлизат на музикалния пазар през последните няколко години, но явлениято не засяга само нашата страна, а се проявява в световен мащаб. Повечето почитатели на K-pop са в тийнейджърска възраст и в много от случаите остават неразбрани от познатите и родителите си. Първата среща с K-pop за повечето възрастни може да бъде сравнена само с изживяването на бабите и дядовците ни, които за пръв път чуват техно музика. Това, разбира се, лесно може да се обясни с различията между поколенията,

глобализацията, интернет, възможността да опознаеш различна от своята култура и т.н.

Подробности за този стил музика получавам от Вяра, ученичка от 8 клас

на ГПЧЕ – Плевен. Срещам се с нея, защото самата аз попадам в групата на неразбиращите увлечението по К-попа. Разказва ми как за първи път чува такава музика през февруари 2011 година, когато случайно си пуска в интернет песен, публикувана в социалните мрежи от неин познат

Веднага се запалва по този стил, както тя сама казва, но истинският огън се разгаря няколко месеца по-късно. Оттогава досега това е най-силното ѝ увлечение. Обяснява ми, че това не е само музика, а стил на живот, на обличане, прически Big Bang! Всеки един аксесоар, подобен на този, който то носи любимата звезда, е от значение. Казва още, че са малко тези, които са слушали този стил и после са спрели, започнеш ли веднъж – нямало отказване. Питам и за модата – корейските изпълнители изглеждат унисекс, как ги различават. Смейки се, ми отговаря, четрѐдва време, за да свикнеш да различаваш момчетата от момичетата, но като цяло си имало различни признаци! Изпълнителите започват да пеят от много малки и затова е толкова трудно, а късите поли не са на почит в тези страни, както е например в България.

Разбирам още, че корейският поп е продукт на Южна Корея, като основни негови консуматори са Япония и Китай, но не липсва интерес и от страна на Великобритания, Германия, Франция, Турция, Румъния, където се изнасят и едни от най-големите концерти на тези групи. Обикновено групите се сформират след кастинг, а броят на членовете варира между 4 и 18 душикато смесени групи от момчета и момичета почти няма. Така сформираните групи тренират в продължение на няколко години, до момента, в който то са готови да се покажат на сцената, като задължително условие е те да умеят да танцуват добре, докато пеят, а в много от случаите се изисква и актьорска игра.

В тази далечна страна е прието да се мляска по време на хранене, като израз на уважение към домакинятаа липсата на тази проява на „лошо възпитание“ се счита за обида. Малко познато в България е и кулинарното изкушение кимчи – вид туршия, която е традиционно ястие в корейската кухня и е толкова популярна там, че е разработен специален вид, който то да може да се консумира от първия корейски космонавт в Космоса. Вярно, както и много други от любителите на К-попа знаят тези факти, защото се вълнуват не само от музиката, но от цялата култура на страната. Дотук се разкрива една малка част от причините, които подтикват младите хора в България все по-често да се

насочват към изучаване на специалността Кореистика и макар да споделят, че понякога им е трудно, те не се отказват от преследването на бляновете си. Вярно е от тези млади хора, които мечтаят да продължат образованието си по този начин и някой ден да успее да посети Южна Корея. Един от най-големите проблеми на подрастващите любители на К-попа като нея е, че в Плевен няма училище, в което да изучават любимия си език и трябва да почакаат, за да сбъднат мечтите си. Но тези младежи си остават пример за различно мислене, за възприемане на една разнообразна култура, която е далечна на нашата, за желание да изучават новото, за това, как понякога непознатото може да бъде неразбрано от приятелите и родителите. Което не го прави по-малко интересно и даже любимо.

5) 남산타워

한국 드라마와 영화로 유명해진 서울의 랜드마크 남산 타워를 방문하였다.



Леко уморени от обикалянето из огромния Исторически музей, следващата наша цел решихме да е кулата Намсан. Явно умората ни беше малко повече, защото объркахме пътя и се забихме по едни малки улички, които изглеждаха като излезли от сериал за бедната Джан Ди. Поредният кореец, когото помолихме да ни помогне, ни упъти на корейски с една-две английски думи за правилната посока.

Натъпкахме се във вагончето към върха, познато ни от сериала BOF, което ни отведе до подножието на кулата. Мястото предлага невероятна

гледка към Сеул, но ние искахме да се изстреляме още по-нагоре.

Точно до входа на кулата са разположени местата за желаниа. Шарените дървета от надписани катинари в многоброй ни цветове оформяха един прекрасен фон за снимки.

Подобно красиво оформление представляваше и вътрешната част на подножието на кулата, където по цялата стена беше разграфено на квадратчета за залепяне на магнитни пожелания. Явно корей ците много обичат подобни ритуали за нагледно и публично представяне на това, за което копнеят.

Гледката от върха е зашеметяваща и можеш да видиш цял Сеул, кой то се оказва невероятно голям. Вместо стени във всички посоки на залата има единствено прозорци, през които с наслада можеш да наблюдаваш не само изгрева, но и залеза над Сеул.

Кулата е разположена на върха на планината Намсам, висока 262 м и е построена през 1969. Първоначалното ѝ предназначение е било за комуникационно съоръжение, но след 10 години е преобразувано като туристическа атракция и оттогава се популяризира като място за почивка и забавления. Самата кула е висока 237 м и при ясно време може да се види не само летището Инчон, но и Северна Корея.

6) NANTA

대한민국 대표 공연으로 자리매김 한 난타를 관람하면서 배우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갖었다.



Описание театър "Нант" в Сеул грешка? Свържете се с нас!

"Нант" – малък частен театър в центъра на Сеул, която има повече от петнадесет години демонстрира твърдия opisuemy шоу, което също се нарича "Нант". Шоуто е изненадваща комбинация от театрални и музикални представления, и се смята за един от най-известните културни забележителности на столицата на Южна Корея.

Theater "Нант" едва ли е твърде много мощности – своята аудитория проектирана от само 600 души, така че да получите билети за представления може да бъде изключително трудно. В основата на местните показва сложни песни, които се извършват в най-неподходящите "музикални инструменти" – лъжици, тенджери, кофи, пръчки, табели и тампоните. Представяне изпълнен с искрящ хумор, и да се разбере, че не е необходимо да се знае корейски език – забавно е гарантирано без него. Като цяло, на театър "Нант" – това е истинската перла на Сеул, както и пълен на града трябва да посетите това място.

3.2 불가리아 청소년 대표단 초청 사업

3.2.1. 초청 사업 개요

가.방한 인원: 총 5명

불가리아 청소년 체육청 공무원 1명, 불가리아 청소년 대표단 4명

구분	No	소속	영문이름
공무원	1	불가리아 청소년 체육청	Tatyana Dimitrova Misheva
청소년 대표	1	플로브디프 1 번 중등 학교	Kristina Ivelinova Tomova
	2	바르나 세계 경제대학	Kostadin Ivanov Dinkov
	3	소피아 국립 대학교	Nikoleta Zhivkova Dimitrova
	4	부르가스 국립 대학교	Diyana Bozhidarova Parapanova

나. 방한 일정: 2015년 9월 27일 ~ 10월 3일 (6박 7일)

다. 방한 프로그램: 아래 첨부

9월 27일(일)
인천 공항 도착 호텔 체크인 오리엔테이션 저녁식사
9월 28일(월)

서울 역사 박물관 방문
주한불가리아 대사관 방문

9월 29일(화)

남산골 한옥 마을 방문

9월 30일(수)

한국 학생들과 한국-불가리아 문화 역사 세미나 개최

10월 1일(목)

강릉으로 이동
한국 학생들과 전통 문화 수업 개최
허난 설한 생가 방문

10월 2일(금)

서울 시청 방문 - 통통 투어 참가
북촌 한옥마을 방문 - 한복 체험
명동, 남대문 방문

10월 3일(토)

환송 식 및 기념 촬영

라. 일정 세부 내용 및 불가리아어 보고서 / 안내서

1)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 방문

2012년에 개장한 대한민국역사 박물관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한국 근현대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바탕으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최초의 국립 근현대사 박물관이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에 위치해 있으며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보여주는 자료 7만 8천여 점(2014년 말 기준)을 소장하고 있다.

박물관 설립 배경은 2008년 8월 이명박 정부가 8·15 경축사에서 '현대사박물관' 건립을 공포한 데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2009년 4월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원회'가 출범하고, 5월에는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추진단'이 발족했으며, 같은 해 10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라는 명칭이 확정되었다. 옛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본관을 구조변경하고 별관 부지 일부를 증축하여 박물관을 건립하였으며, 2010년 11월 25일에 건물 착공식을 시작으로 2012년 5월 23일에 완공되었다. 박물관 개관일은 2012년 12월 26일이다.

전시 내용은 조선이 세계에 문호를 개방한 1876년 개항 시기부터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6.25전쟁을 거쳐,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뤄낸 대한민국의 행보를 담고 있으며, 시대별로 총 4개의 전시실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제1전시실에서는 '대한민국의 태동', 제2전시실에서는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제3전시실에서는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제4전시실에서는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을 주제로 전시가 구성되어 있다.

불가리아 청소년 대표단과 함께 역사 박물관을 방문하여 전문가에게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긴 시간동안 공부를 하였다.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에 구비된 상세 설명은 현재 영어, 중국어, 일어로 번역되어 있다. 상세 설명을 불가리아어로 번역하면서 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불가리아에 있는 친구들과 한국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다룬 설명서는 아래에 한글과 불가리아어 번역본을 첨부한다.



<한국어 버전>

제1전시실은 개항기부터 광복까지 다룬 <대한민국의 태동> 전시실입니다.

1전시실 입구에서 프롤로그 영상, 하늘에서 내려다 본 영토와 애국가, 마지막으로 가운데 둥근 반구 위에 태극기로 변하는 영상연출로 대한민국의 상징인 애국가와 태극기 그리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이해하는 코너로 마련하였습니다.

19세기, 조선 연해에 서양의 이양선(異樣船)이 자주 출몰하며 통상을 요구했지만, 조선 정부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개항하였지만 이 조약은 일본인 치외법권과 같은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인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이어서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과도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개항 후 조선은 서구 문물을 수용하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문호를 개방한 이후 새로운 생활문화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서양 선교사들이 세운 신식 학교에서 근대 학문을 가르쳤으며, 서양식 건축과 전기, 전화와 전신, 교통 시설, 우편 제도, 금융 제도 등이 도입되었습니다.

(태극기 코너)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태극기인 <데니태극기:조선의

외교고문으로 일했던 미국인 오웬 데니에게 고종이 직접 하사한 태극기>부터 오른쪽 상단의 김구 서명 태극기, 오른쪽 하단의 광복군 태극기 등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태극기를 한데 모아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1897년 고종은 황제로 즉위하고 대한제국(大韓帝國) 수립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근대적인 자주 독립국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시기입니다. 황제의 명으로 만든 대한제국의 법인 <대한국 국제>와 황제를 상징하는 용의 형상을 사용한 옥새 <칙명지보>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러일 전쟁 후 영국, 미국, 러시아 등의 열강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승인받은 일본은 1905년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는 조약인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였습니다. 한국이 일본에 외교권을 빼앗기고 내정까지 간섭받는 상황에 이르자 국권 수호를 위해 힘을 기르자는 계몽 운동이 일어났으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의병이 봉기하였습니다.

<국가안위 노심초사>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뤼순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감찰관인 야스오카에게 써준 친필유묵입니다. 안중근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던 자료이며,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고 애태운다'는 뜻입니다. 보물 제 56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실물자료 일제강점기의 탄압과 수탈은 좁고 낮은 통로에 장애물과 침묵으로 고난의 역사를 공간에 표현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말과 글, 이름을 빼앗기고 징병, 징용, 위안부로 끌려가야했던 고난과 역경의 역사를 실물자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운동 코너에서는 기미독립선언서의 중심사상을 인터랙티브 무빙 텍스트 기법으로 연출하여 3.1운동 정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언서에 담긴 평등, 공존, 독립, 자유, 평화 등의 중요한 가치들을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독립선언서 원본도 진열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8.15 모자이크 '8.15광복'에서는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의 사진으로 '숫자 8.15'의 모자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사진으로 담지 못한 분들은 영상을 통해 사진과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8.15 광복을 맞이하였지만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냉전 속에서 한반도는 38선을 기준으로 분단을 맞게 됩니다. 전면의 38선 팻말과 바닥의 38선 표시를 연출하였고, 오른쪽에서는 남한에서의 사태 전개를, 왼쪽에서는 북한에서의 사태 전개를 사진과 실물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전시실은 정부수립과 6·25전쟁을 다룬 <대한민국의 기초확립> 전시실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6·25전쟁과 전후복구', '근대국가 토대구축'으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대립하는 냉전체제 속에서 남한과 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를 걷게 되었고 결국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5·10 총선거는 21세 이상의 모든 남녀에게 최초로 선거권이 부여된 직접·평등·비밀·자유 원칙의 민주 선거였습니다.

5·10 총선거로 구성된 초대 국회는 가장 먼저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 공포하고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을 선출하였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국민 축하식’이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 해 12월 유엔으로부터 “선거 감시가 가능했던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수립된 정부”로서 승인받았습니다.

1948년 정부수립 후 그 기초를 다지기에 부족했던 때, 우리는 1950년 6·25를 맞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6·25전쟁이 북한의 계획된 남침이었으며, 남한과 북한의 민족전쟁이 아닌 냉전의 산물이자 국제전의 성격을 지닌 전쟁이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전쟁의 경과에 대한 내용으로 미군비행사의 손수건<안전보장요청서>과 비행일지, 중공군의 소지품 가방<항미원조:미국에 대항하고 조선(북한)을 지원한다는 뜻>과 물컵으로 국제전의 성격을 표현하였습니다.

1950년 흥남철수 당시 메리디스호를 연출한 모형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화물선에 1만 4천여 명의 피난민을 싣고, 거제 장승포항까지 3일 동안 항해를 했으나, 영하의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오히려 배 안에서 5명의 새 생명이 탄생한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 선원들은 이 아기들에게 김치 원에서 김치 파이브까지 차례로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태어난 김치 파이브는 이경필 씨로 아직 거제도에 살고 있으며 2010년 자신을 구해준 미국 선원들과 감격적인 상봉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메리디스 빅토리호의 구출작전은 2004년 가장 많은 생명을 구출한 배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전후복구와 원조' 코너에서는 전쟁 후 군수물자를 재활용해서 만든 생활 물품, 판자촌 등을 재현하여 폐허 위에서 어렵게 살았던 국민들의 애환을 전시하였습니다.

6·25 전쟁 후 국방력 강화와 외교안보를 위해 추진하였던 한미상호방위조약 비준 관련 자료와 이승만 라인(평화선) 등을 실물자료로 함께 전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출범할 때부터 초등학교 의무 교육제를 택하여 헌법에 의무 교육을

명시, 교육법에서 6년간의 초등교육을 의무화하였습니다. 1950년대 말에 초등학교 취학률이 96%에 달하였고 중고등학교와 대학도 증설, 신설되었습니다. 1950년대에 축적된 인적 자본은 1960년대 이후 근대화와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1960년 3.15부정선거로 촉발된 4·19 혁명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는 동영상 자료, 그리고 벽면의 사진연출 등을 통해 4·19 혁명이 우리나라 민주화의 초석이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3전시실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서 1980년대 후반까지 우리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대중문화가 다양해지며,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향상되고 민주화 운동이 절정을 이루었던 시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과 미국대사관 건물은 1960년대 지어진 쌍둥이 건물로 국민들의 기억 속에는 경제성장과 현대사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개발의 산실이었던 국가재건최고회의와 경제기획원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961년 당시 건물 준공식 때의 자료를 함께 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은 <경제개발5개년계획> 중화학공업정책 등 정부주도의 경제정책과 더불어 국민들의 성실한 노력이 보태졌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경제개발계획, 수출진흥정책 등과 관련한 자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독일로 파견 간 광부와 간호사, 중동 건설현장에서 일한 산업역군들의 삶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파독광부의 월급명세서, 송금영수증, 일기, 사진첩 등 기증자료로 구성된 전시로 멀리 타국에서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묻고 앞만 보고 열심히 일했던 우리 근로자의 땀과 노력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대한민국 1호”, “불가능을 가능으로 일군 기적”등을 전시 아이템으로 삼고 있는 이 코너는 컨테이너가 선적된 모습과 H빔 구조물로 전시공간을 연출하였습니다. 국산 1호 라디오와 국산 고유모델 1호 자동차 포니가 전시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전자 산업, 자동차, 조선 산업, 경부고속도로 건설, 철강 산업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산고유모델1호 자동차인 포니는 1982년 뉴질랜드로 수출되었던 자동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수주하고 제작한 유조선인 애틀랜틱 배런호도 모형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배는 정주영 회장이 500원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 이야기로 영국 선박도면 설계회사를 설득하고, 그리스선주에게서 2척의 유조선을 수주하였던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성장의 이면에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힘들게 일해야만 했던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당시 봉제공장 재현 연출을 통해 체험하도록 하였습니다. 낮은 천정에

먼지가 가득한 작업장에서 14시간 이상을 미싱에 매달려야 했던 장면과 2층의 낮은 다락방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돈을 벌어야 했던 여성 근로자들의 애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전태일 열사와 노동운동의 역사도 영상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코너는 클레이애니메이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의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을 재미있는 스토리로 엮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반대쪽 진열장에는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새마을지도자들에게 대통령이 하사한 라디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1960년대~80년대는 문화가 다양화되고 대중화 되는 시기로 영화, 음악, 스포츠, 패션 등 대중문화의 다양한 아이템들을 실물자료와 영상을 통해 함께 살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문화와 관련된 대한뉴스의 재미있는 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 전시코너는 김지하 시인의 시 ‘타는 목마름으로’ 시작됩니다. 이곳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민주화운동의 흐름과 과정을 실물자료와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의 의미와 희생 등을 상징화하고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낮은 조도와길게 이어진 진열장으로 연출을 강조하였습니다. 1972년 <10월 유신체제>를 시작으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도 민주화 운동이 계속됩니다. 1980년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많은 희생자가 나기도 했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전국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한 최대 규모의 민주화 운동이었으며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을 골자로 하는 <6.29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제3전시실 마지막 코너로 마련되어 있는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코너에서는 역대 대통령의 초상화와 재임기간을 담은 명판, 그리고 대통령의 활동상을 모니터로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무책상과 연설대를 두어 관람객들이 기념촬영을 할 수 있으며 대형액자로 연출한 창을 통해서는 경복궁, 청와대, 북악산, 인왕산 등의 빼어난 경치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불가리아어 버전>

Първият шоурум е адресирано до освобождението от gaehanggi <съживи Република Корея> Стайте на изложбата.

1 В пролога видеото на шоурум вход, на територията и националния химн слизаше от небето, последният символ на националния химн на Република Корея като видео насочено полукълбо на промяна на националното знаме и националния флаг на около ъгъл и е установил, че разбирането на територията на Република Корея.

19-ти век, често преследва край брежната корабостроенето yiyangseon (異樣船) на Запада и е поискал нормално, корабостроене правителство е отказал. Въпреки това, в Япония и през 1876 г. тя подписа <Договор Ganghwa> Договор е открит, и въпреки че неравноправни договори любимци искане на Япония, като японски екстериториалност.

Следван от Обединеното кралство, Германия, Русия, Франция и т.н. също влезе в договор. След откриването на корейската култура е била нека нов живот след отваряне вратите си, като същевременно се насърчава политиката рехабилитация за настаняване на западната цивилизация. Правителствени и западни мисионери бяха научили в съвременния проучването установени нов стил училища, западен стил сграда с ток, телефон и телеграф, транспорт, пощенски система, финансови институции и др са били въведени.

(ъгъл) е най-старият национален флаг остане в страната ни <Denny Flags: външен Gojong директно отстъпва по един национален флаг на American Оуен Деню, които са работили като консултант в корабостроенето> от горния десен ъгъл на Kim Gu подпишат национални я флаг, в долния десен ъгъл gwangbokgun Flags т.н. Нашата история Тя събира заедно изложбата, която има силно национално знаме.

1897 беше обявяването на империята на цар Gojong (大韓帝國) и да се

утвърдя престола като император. Modern често giulyeotdeon време, опитвай ки се да направят независима държава. Империята на името на император създали корпорация <срещу Корея International> дъга с формата на дракон, който символизира императора са изложени <chikmyeong Zibo> а.

След Руско-японската война, Обединеното кралство, САЩ, получил одобрение от правомощията на властта на Корея, Япония и Русия подписаха договор в сила, е <eulsa neukyak> довеждай ки oegyogwon Корея през 1905. Южна Корея се проведе тази просветлението е gireuja сили да защити суверенитета Чрез намесата на вътрешните работи, лишени обстоятелства получават oegyogwon в Япония, това има Righteous Army въстание да защитава суверенитета.

<Национална съдба ядро chosa> Ahn лекар sseojun Ясуо кола до главния инспектор, когато са убити Ито Хиробуми и хвърлен в затвора в Порт Артур затвора автограф yunuk на. Ан и материали, които са били събрани в Memorial ", загрижен за добруването на страната, а нея ще изгорят" се разбира. Сминдух е бил определен Treasure No. 569.

Японска окупация японската окупация на реални данни, представено потисничество и експлоатация има история на проблеми с препятствия и тесен и нисък проход в рай она на спален вагон. По време на японската окупация и на Корейския писането, лишени от името показва наборници, изготвени, история на страдания и лишения, които излизат с реалните данни, взети като сексуални роби.

3.1 Движение в тъгъла чрез насочване на централния идеята за преместване на текст подпишат Декларацията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та от интерактивни техники

3.1 трябва да бъде по-лесно да се разбере, отколкото умствено упражнение. Равенството се съдържа в декларацията, съвместно съществуване, независимостта, свободата, ние позволяваме обособяването важни ценности като дълбочината на мира. В оригиналния Декларацията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 на разположение директно от рафтовете.

8.15 Мозайката "независимост" 8.15 снимки на жертви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та на линейно топлинно sunguk създадени мозайка от "номер 8.15. Има хора, които да направите снимка, съдържаща снимка и име, чрез видео.

8.15 приветства освобождението на свободното лагера в Студената вой на, но комунистическата фракция ще се срещне с Корейския полуостров, разделено на 38-та паралела. Беше режисира 38-и и 38-и подове на шоуто на предните пътни знаци, развитията в Юга отдясно и отляво трябва да е да погледнем развитието на Северна Корея над картинката и реални данни.

Втората изложба Стаята е създадена с войната 25 юни правителството се справиха <основа от Република Корея, създаден> Стаите на изложбата.

"Правителството на Република Корея създадена, " 25 юни войната и следвоенното възстановяване", се състои от "модерни държавни строителни основи.

След Втората световна вой на Liberty Северна и Южна Корея, са в този лагер в конфронтация на Студената вой на с комунистическия лагер беше да ходи различна система беше решено най -накрая да се проведат парламентарни избори, само след като всички Юга. 5·10 всички преки избори и на 21-годишна възраст или на равенството между половете, за първи път в поредицата, предоставена . . . тайна е на принципа на свободните демократични избори.

5·10 покани избори парламент се състои от първи Конституцията на Република Корея приет, обнародван и Сунг-ман Ли беше избран Lee Si-млада, вицепрезидент. 15-ти август 1948 г. правителството на Република Корея да създаде национален празник израз "се проведе.

Правителството на Република Корея, е одобрен като от декември същата година Организацията на обединените нации "законно установен правителствата в региона, че наблюдението на избори е възможно."

След 1948 г. правителството създаде хеликоптера, когато ни липсва дори основите, ние ще се срещне с 25 юни, 1950.

Тук, в планираната инвазия на 25 юни на Северна Корея беше вой на, ние искаме да покажем, Южна Корея и Северна Корея беше войната на етническа вой на с естеството на продукта, а не на Студената вой на и на Международната изложба.

Носни кърпи на американските астронавти до информацията за хода на

войната <Security Искането> и полетните дневници, лични вещи на китайската чанта <hangmi помощ: означава срещу САЩ подкрепя Chosun (Северна Корея)> и е представена същността на Международната изложба в чаши за пиене ,

1950 Хъннам време евакуация модел е насочен към Мередит Lake са изложени. Провеждане на 10 004 000 бежанци, от товарния кораб, но платното, докато Seung 3 до Geoje Поханг, пет нов живот се ражда, вие сте в по-скоро анекдотични пъти без нито един смъртните случаи по пътищата в минусови студ и глад.

Американски моряци са високи осветена от своя страна, докато Кимчи име в Кимчи спечели пет до две бебета.

Кимчи е родена през последните пет все още живеят в Geoje и uigyeongpil 2010 г. и се казва, че са спасени американските моряци и техните вълнуваща среща. Meredith Victory благоприятства спасителна операция е била вписана в Книгата на Гинес за световни рекорди за най-спасителна лодка спасени през 2004.

"Следвоенна възстановяване и подпомагане" корнер след войната се издържа чрез рециклиране на боеприпаси стоки, като например да се възпроизведат радости и скърби на хората, които са живели бараки бяха изложени върху руините трудни.

25 юни, след края на войната, укрепване на националната отбрана и външните работи Договор за взаимно Defense ратифицира съответните данни и Сънг-ман Ли Line (мир линия), който е повишен в сигурността, като например изложбата заедно с реални данни.

Република Корея е задължително начално образование на задължителното образование в Конституцията изрично е избрал първата задължителното образование от началното училище да започне, шест години в Закона за народната просвета. Начални цени записване в училище в края на 1950 г. е 96% месечно върху средните училища и университетски експанзия, тя е установена. Човешкият капитал, натрупани през 1950 е бил в основата на икономическия растеж и модернизация от 1960.

3.15 през 1960 г., за да разгледаме развитието на Априлската революция, предизвикана от изборната кадри измами и фотографии чрез

производството на стената април Revolution е символично показва, че в основата на една демократична държава.

Третият изложбената зала е за растежа и развитието на Република Корея по този въпрос.

От 1960 до края на 1980 г., нашата икономика е нараснал с скача и границите, както и популярната култура jimeo варират, ниво на съзнание на хората се е подобрило и съдържа по време, когато демократично движение е постигнал своята кулминация.

Нашият музей и сградата на американското посолство е построена през 1960 г., близнаци сградите остават Въ паметта на хората като символи на икономическия растеж и съвременната история. По-специално, родното място на бившия Национален възстановяване и Board икономическо планиране срещата това е най -доброто място в икономическото развитие на страната ни. В тази връзка, през 1961 г. в сградата по време на церемонията, когато материалите са изложени заедно.

Background, защото страната ни е в състояние да постигне бърз икономически растеж в кратко време <икономическо развитие петилетка> тежки индустриални политики, с икономическата политика на правителството водено jyeotgi Искрените усилията на Националната ботаническа. Тук имаме работа с материали, свързани с такъв план икономическото развитие, политики за насърчаване на износа. Отново

Изпращането на Германия между миньори и медицински сестри, са изложени в живота на Industry yeokgun работил в строителна площадка в Близкия изток. Приплъзване заплата Padok миньорска, парични постъпления, дневници, фото албуми, като иска от копнеж за дома в друга страна, доколкото е изложбата се състои от дарения материал е право напред паегоја сложи потта и усилията на нашите служители, които са работили усилено, за да се види.

"Република Корея No. 1", това "чудотворци в невъзможното възможно" и които правят изложба позиция е насочена изложбеното пространство в облика ъгъл и Н-лъч строителство контейнер пратката. Местни радио и No. 1 вътрешното уникална пони кар модел № 1 е на показ, и това, в допълнение към работата с информация, свързана с електронната промишленост, автомобилостроене, корабостроене, лека конструкция

магистрала, металургия. Местни уникален модел автомобил No. 1 е едно пони автомобили през 1982 г. е бил изнасян за Нова Зеландия. Първите един танкер поръчки и производството в Атлантическия Барън са експонирани като орех модел държава. Този кораб е председател Chung убеди британската компания да превозва проектни чертежи боядисани костенурка история в 500 спечелени законопроект, и съдържа анекдотични кой то нареди два кораба от гръцките собственици на петролен танкер.

Ако имаше да изпитате във времето растеж произведе дреха фабрика възпроизвежда, че е имало жертви на работниците тя трябваше да работим усилено, при тежки работни среди. Повече от 14 часа на работното място е пълнен с прах върху ниския таван на сцената в нисък таван и втория етаж е липсвало maedalryeooya спане върху saewoojam радостите и скърбите на работещите жени, които печелят пари е създадена от корнер, за да изпитате косвено. Единична Spark също историята на работническото движение и филиали също са въведени чрез видео.

New Общността Movement корнер бе съставена от глина анимация. Движение старание New Общността, самопомощ, тъче на духа на сътрудничество е създал една интересна история, за да ви помогне да разберете. От друга страна витрина са изложени са различни материали, свързани с New Village движение. Председател, то се проявява и по-малък от радиото по време на лидерите Saemaul.

1960 и 1980 са конфигурирани така, че когато филмът е диверсифициран и популярната култура, музика, спорт, мода и поп културата може да се прецени различни позиции заедно чрез реални данни и видео. Можете да видите също интересен видео на новини, свързани с културата.

Изложба движение Corner демокрацията започва по време на "Burning Thirst" на поета Ким Чи-ха. Тя е въведена през реални данни и снимки и филми с потока на процеса на демократизация движение от 1960 до 1980. Той има смисъл и символизира жертвата на демократичните движения доведе покажат да подчертае режисура дълго и ниско светлината, за да се повиши концентрацията. Движението за демокрация през 1972 г. ще продължи <система октомври Yushin> в изходно положение на свобода и основни права на хората, подложени на ограничения. Гражданите за

потискане възискателни демократия със сила през 1980 г. са имали много жертви като nagido <5.18 Gwangju Демократизацията Movement> 1987 <Юни Демократичното движение> доведе до <6.29 обявена> това беше същността на изменението на гражданите на най -голямото движение на демокрацията на страната всички сфери на живота участвали доброволно председател jikseonje.

Третият шоурума в Република Корея президенти идват до последния корнер корнер табелка, съдържаща портрета на бившия президент и срока му, и е в състояние да се види дейността на президента на монитора. И вече ви служи за бюрото и възпоменателна реч за няколко посетители са взети през прозореца и се насочва голяма рамки Gyeongbokgung Palace, Cheong Wa Dae, bukaksan, невероятна природа, като Inwangsan също могат да бъдат оценени.

2) 주한 불가리아 대사관 방문

한남동에 위치한 주한 불가리아 대사관을 방문하여 주한 불가리아 대사관 Petarv Andonov 대사와 2시간 가량 면담을 하였다. 한국 대사로 근무한 지 올해 4년 째 되는 안도노프 대사는 청소년 대표단에게 한국의 근현대사와 현재 한국과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등을 설명 해 주었다.





3) 남산골 한옥 마을 방문

서울의 상징인 남산은 옛 이름을 목멱산이라고 하였으며, 도성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남산으로 불리어 왔다. 시내에 산재해 있던 서울시 민속자료 한옥 다섯 채를 이전, 복원하고 이 한옥에 살았던 사람들의 신분성격에 걸맞은 가구 등을 배치하여 선조들의 삶을 재조명 하였다. 전통정원 내에는 그동안 훼손되었던 지형을 원형대로 복원하여 남산의 자연식생인 전통 수종을 심었으며, 계곡을 만들어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하였고, 또한 정자·연못 등을 복원하여 전통양식의 정원으로 꾸며져 있다. 이 곳에서 400년전 한국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들여다 보는 시간을 갖었다. 또한 이 곳에서 우리나라 전통 한복을 입어보는 체험을 하였다.



4) 한국-불가리아 문화 역사 세미나 개최

대한민국 청소년 대표들과 한국-불가리아 문화 역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대한민국의 역사 배우기가 주를 이루었으며 대한민국의 태초부터 현재까지 역사를 간략하고도 정확하게 발표 하였다. 한글 배우기, 한복, 한국의 청소년들의 생활등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었고 불가리아 청소년들이 불가리아로 돌아가 세미나를 토대로 발표 한 내용은 아래 PPT 슬라이드를 첨부한다.



FEATURES



*Korea is a country with
4 distinctive seasons*



*About 70% of Korean territory
is covered with mountains*

FEATURES



*Korea is a country with
4 distinctive seasons*



*About 70% of Korean territory
is covered with mountains*



ORIGIN OF NAME



Goryeo, also known as Koryŏ (高麗, 918~1392)

ORIGIN OF NAME



Goryeo, also known as Koryŏ (高麗, 918~1392)



대한민국
大韓民國

1948.08.15

1945.08.15

National Liberation Day of
Korea

(literally "Restoration of Light
Day")

KOREAN LETTER

한글 *Hunmin Jeong-eum*



Languages	Korean
Creator	The court of King Sejong the Great
Time period	1443 to the present
Direction	Left-to-right
Unicode alias	Hangul



		한글표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ㄱ	가	갸	갓	갓	고	교	구	규	그	기	
ㄴ	나	냐	너	녀	노	뇨	누	뉴	느	니	
ㄷ	다	댜	더	며	도	도	두	듀	드	디	
ㄹ	라	랴	러	려	로	료	루	류	르	리	
ㅁ	마	먜	머	며	모	묘	무	뮤	므	미	
ㅂ	바	뵜	버	벼	보	보	부	뷰	브	비	
ㅅ	사	샤	서	셔	소	쇼	수	슈	스	시	
ㅇ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ㅈ	자	쟸	저	져	조	죠	주	쥬	즈	지	
ㅊ	차	챤	처	쳐	초	쵸	추	쥬	츠	치	
ㅋ	카	캬	커	켜	코	코	쿠	큐	크	키	
ㅌ	타	탸	터	텨	토	토	투	튜	트	티	
ㅍ	파	���	퍼	펴	포	포	푸	퓨	프	피	
ㅎ	하	햐	허	혀	호	호	후	휴	흐	히	
ㄱ	까	갸	꺼	껴	꼬	꼬	꾸	큐	끄	끼	
ㄷ	따	댜	더	며	도	도	두	듀	드	디	
ㅂ	뵜	뵜	버	벼	보	보	부	뷰	브	비	
ㅅ	싸	샤	셔	셔	쏘	쏘	수	슈	스	시	
ㅈ	짜	쟸	저	져	조	조	주	쥬	즈	지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ㅣ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한글의 자음과 모음의 기원은 발성기관과 창조세계로부터 나온 것이다.

1 ㅣ	2 ·	3 —	^
4 ㄱㅋ	5 ㄴㄹ	6 ㄷㅌ	←
7 ㅂㅍ	8 ㅅㅎ	9 ㅈㅊ	? SPACE
.,?!	0 ㅇㅁ	EN / 123	↵

TRADITIONAL CLOTHES HANBOK (한복)



YOUTH EDUCATION

Schools in Korea

Kindergarten	2-3 Years
Primary School	6 Years ←
Middle School	3 Years ← MANDATORY
High School	3 Years
University	4 Years



PALACES in 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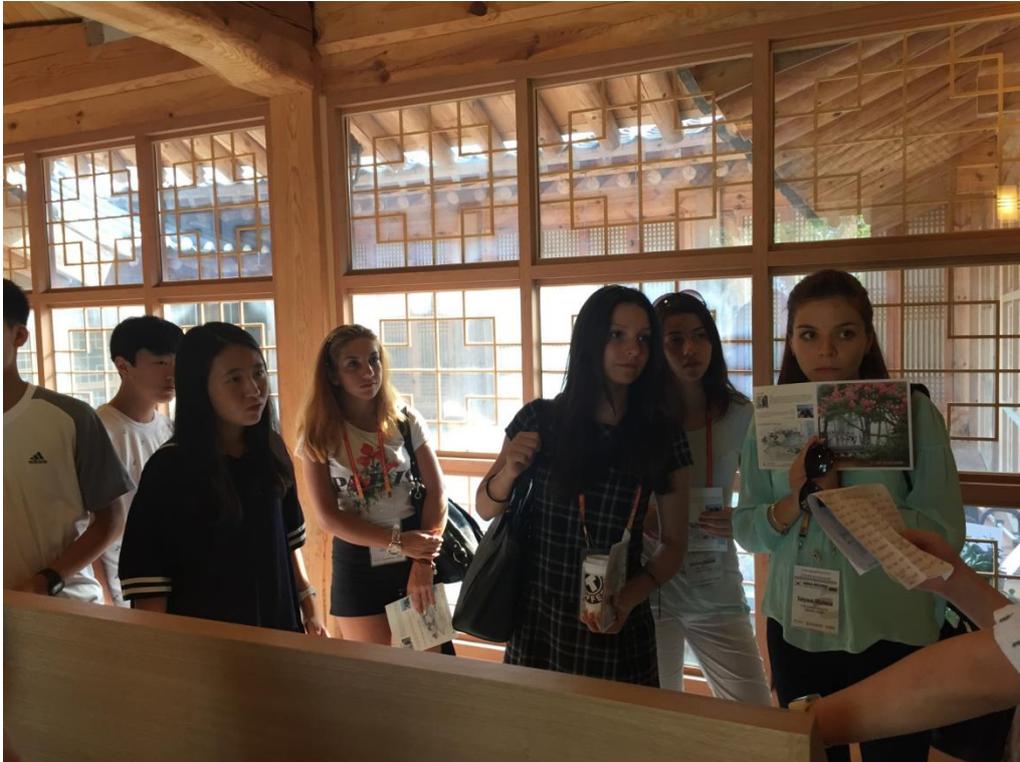


Благодаря

불가리아 측 발표



5) 학생들과 전통 문화 수업 개최





6) 서울 시청 방문 - 통통 투어 참가

서울시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시청사 통통투어에 참가하여 서울시에 대한 역사적 의의와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의 변화된 모습을 한눈에 파악 하는 시간을 갖었다.

【시청투어 코스소개】

★2012년 10월에 새롭게 태어난 서울시 청사는 한국 전통가옥의 처마를 재해석한 친환경적 건물로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공간과 시민들이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가수 싸이의 뮤직비디오 촬영장소와 공연장소, 런닝맨 촬영장소, 보물로 지정된 불랑기자포, 기네스북에 등재된 역사적인 장소까지 흥미로운 장소를 찾는 재미도 쏠쏠할 것이다.

★해설사와 함께하는 通通투어는 청사 곳곳에서 발견되는 옛 흔적부터, 기네스북에 오른 수직정원, 옛 시장실 복원공간, 청사 건립시 발굴된 조선시대의 무기창인 군기시유적전시실, 건물 에너지 비밀 등 청사와 시민청, 도서관 곳곳을 코스별로 1시간에서 1시간 30분정도 진행 된다.

★둘러보는 곳 : 청사, 서울도서관, 시민청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시간여행 코스

《일반코스》 시티갤러리 → 옛 청사 흔적실 → 옛 시장실 복원실 → 외벽시계 → 수직정원 → 하늘광장 → 시장실앞 → 메타서사-서벌 → 군기시유적전시실 → 시민청





7) 불가리아에서의 발표회 및 설명문 제작

불가리아로 돌아간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은 한국에 다녀온 활동과 공부한 역사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었다. 약 300명 이상의 학생들과 교사가 발표회와 설명회에 참가하였으며 앞으로 더 많은 숫자의 불가리아인이 제대로 된 한국 역사를 전해 들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사업을 마치며

불가리아 내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은 한국학진흥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2013년부터 3년째 진행되고 있다. 지난 2년간은 불가리아내에서 사업을 진행하였었는데 항상 직접 한국을 접하게 해 주고 싶고 직접적으로 한국을 보고 느끼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항상 있었다. 2년간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학생들과 교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을 접하였고 더 많은 불가리아인들이 한국에 대해 바른 인식을 갖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 불가리아 교사들의 정확한 한국역사 인식 확립

한국어과 한국역사를 불가리아 청소년들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사들로 하여금 이번 한국 방한과 세미나는 올바른 역사의식과 자긍심 함양 및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 증진에 도움을 주었다. 불가리아 교사들은 대한민국 근세이후 역사를 단계적·체계적 학습을 통한 한국역사 바로알기 테마별 역사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둘째, 불가리아 학생들의 한국 역사 관심 고조

불가리아와 멀리 떨어진 나라인 한국에 대한 제대로 된 학습을 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이번 사업을 통하여 한국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 졌고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역사라고 하면 대부분 학교시절에 경험을 바탕으로 암기과목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의 다양한 역사적인 장소를 직접 둘러봄으로써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문자로 읽는 것보다 가슴에 새겨 인식하게 되었다.

셋째, 역사 안내, 한국 소개 불가리아어 버전 작성

불가리아로 돌아간 학생들과 교사들은 불가리아로 박물관 설명서와 한국 역사, 문화에 대한 설명을 불가리아어 버전으로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에 구비된 상세 설명은 현재 영어, 중국어, 일어로 번역되어 있다. 상세 설명을 불가리아어로 번역하면서 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불가리아에 있는 친구들과 한국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프로젝트의 진행 전부터 마무리까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셨던 한국학 중앙 연구원과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를 드린다.

이 결과물은 2015년 대한민국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해외 민간단체 및 학회 지원사업의 지원금으로 수행된 연구결과물임